

2020-2021 학년도 입학생 합동 오리엔테이션

인사말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비대면으로 만 만날 수 있었던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이처럼 교정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보니 기쁘고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교육은 학생과 선생이 그리고 동학끼리 얼굴을 마주하고 둘러 앉아 학문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해야 그 효과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기본 요건이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역병으로 인해 3학기 째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대학교는 서구의 명문 리버럴아츠(LA) 대학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숙형 대학(RC)이라는 점입니다. 기숙사에 머물면서 24시간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정신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대학교가 지향하는 리버럴아츠 대학의 이상이 지난 세 학기 동안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대학교의 교수님 및 직원 선생님들은 지난여름 내내 고민과 토론을 통해 더 이상 대면수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위생문제에 극도로 조심하면서 대면수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방침을 이해하고 협력해주는 여러분과 가족에게 교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대학교는 서구의 리버럴아츠 대학들을 모방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 당 최소 학생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미국과 비교하면, 모두 주립대학들과 유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을 등록 시키고 과목별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학교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받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강생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단 1명의 학생이 수강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업이 이루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개교 이래 우리대학교는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유지해 왔으며, 1-2학년 수업을 마치고 미국 대학에 유학할 수 있도록 ‘2+2 복수학위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시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원대한 꿈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대학교는 여러분이 좋은 교육과 인성을 배양하여 소수정예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뒷바라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나 학교에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방문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5.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